

소상공인 경영자의 창업환경이 실패부담감과 창업실패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Small Business CEO's Start-up Environment on Fear of Business Failure and Entrepreneurial Failure

송경숙
원광보건대학교

Kyong-Suk Song(greeting@wu.ac.kr)

요약

본 연구는 소상공인 창업환경이 실패부담감과 창업실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데 목적을 갖고, 서울지역소재 소상공인 경영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창업환경이 실패부담감에 미치는 영향은 경영자 환경, 비즈니스적 환경, 조직내부 환경, 조직외부 환경이 실패부담감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창업환경이 재무적 비재무적 손실에 미치는 영향은 창업경영자 환경, 창업비즈니스적 환경, 조직내부 환경이 재무적 비재무적 손실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실패부담감이 창업실패에 미치는 영향은 실패부담감이 재무적 비재무적 손실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경영자 자질, 기업가정신, 비즈니스적 환경의 비해 조직내부 결속, 소통력 요인이 실패부담감과 재무적·비재무적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속성임을 입증해 주었다.

■ 중심어 : | 소상공인 | 창업환경 | 실패부담감 | 창업실패 |

Abstract

This study is intended to look into the effects of small business startup environments on failure burden and startup failure. To achieve this, a survey was carried out to 300 small business CEOs in Seoul.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effect of startup environments on failure burden showed that management environment, business environment, internal organizational environment and external organizational environment had a negative effect on failure burden. Second, the effect of startup environments on financial and non-financial losses showed that startup management environment, startup business environment and internal organizational environment had a negative effect on financial and non-financial losses. Third, the effect of failure burden on startup failure showed that failure burden had a positive effect on financial and non-financial losses. Consequently, this study indicates that internal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communication are important attributes affecting failure burden, financial and non-financial losses, compared with management quality, entrepreneurship and business environment.

■ keyword : | Small Business | start-up Environment | Fear of Business Failure | Entrepreneurial Failure |

* 이 논문은 2014년도 원광보건대학교 교내 연구 지원비에 의해 연구한 논문임.

접수일자 : 2014년 10월 23일

심사완료일 : 2015년 01월 07일

수정일자 : 2014년 12월 16일

교신저자 : 송경숙, e-mail : greeting@wu.ac.kr

I. 서론

최근 정부는 청년실업을 없애고 창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업을 중요한 정책 과제로 삼고 있다. 특히, 베이비 붐 세대들이 은퇴연령에 접어들면서 퇴직한 뒤 창업에 나서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창업은 현대사회에서 실제적인 경제 부흥과 새로운 진로로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창업에 대한 그 효과와 실효성을 이해하는 것은 역동적인 현대시장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요소라 할 수 있다[8][28].

그동안 우리나라 창업은 주로 생계형 업종으로 평균 생존율도 창업 후 1년은 72.6%, 2년은 56.5%, 3년은 46.4%로 자영업자 절반 이상이 3년 이내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비용부담이 매우 크다[29]. 그리고 한번 실패한 창업가는 재기가 쉽지 않은데 이는 기업의 부채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신용불량자나 세금 연체자가 되어 재기하려고 해도 빚을 모두 갚지 않는 이상 정부의 정책자금이나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현실 때문이다. 미국 중소기업청(SBA)의 발표에 의하면 창업 1개월 내 흑자를 내는 비율은 최초 창업기업은 34.1%이나 한번 실패를 경험한 뒤 재창업한 기업은 55.4%를 기록했는데 실제 성공한 창업기업의 평균 실패횟수가 2.8회에 달하고 있으며, 두 번 실패한 기업은 투자 대상 1순위가 되고 있다[8]. 그러므로 재창업은 최초 창업보다 성공할 확률이 높아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곧 창업 성공률의 제고로써 사회적 비용과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예컨대 창업실패를 커다란 경험과 자산으로 활용하여 효용성 있는 창업시장을 형성하는 것은 국가 경제발전의 미래를 약속할 수 있다.

흔히 창업하면 벤처형 창업보다는 생계형 창업, 즉 소규모 창업을 계획하게 된다. 이는 미국이나 일본의 창업행태와는 다른 양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론이나 체계적인 준비보다는 직접 몸으로 부딪치는 형태의 창업을 선호하는 한편 미국은 철저한 이론과 전문 지식을 통한 철저한 준비로 창업을 준비하는 것이 보통이다. 창업기간도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준비하는 반면 미국은 충분한 시간을 거쳐 하는 편이다[17]. 이처럼 우리나라 창어자들의 준비의식 부족은 창업실패에 큰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철저한 준비와 기본 지식이 필요함에도 이를 인식하는데 소홀한 것이다.

모든 산업에는 트렌드가 있고 이 산업들은 경기변동에 따라 일정한 사이클을 가지고 돈다. 이러한 산업 트렌드를 감지하고 잘 이용해야만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산업 트렌드는 단기간에 파악되고 익혀지는게 아니기 때문에 창업자가 잘 알지 못하는 분야의 아이템을 선정하였을 때 실패한 경우는 사업성이나 아이템 선정에 주위를 기울이지 못해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도태되기 마련이며 이는 곧 창업의 실패로 이어지게 된다. 정대용[23]은 새로 시작한 사업에서의 실패체험은 당혹감으로 연결되며, 이는 사업의 욕이나 사업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다. 특히, 사회적 위신을 중요시하는 우리나라에서 사업 위험이 높을수록 사업을 하지 않을 것이며, 실패 부담감이 있는 경우 작은 창업활동도 시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우리나라 창업 환경에서의 실패는 구조적 문제로까지 야기 시키고 있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준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창업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기업가정신과 창업교육에 대한 연구[1][24]에 치중되어 오고 벤처창업과 인터넷창업, 소상공인창업 등과 같은 영역에서 창업가의 특성과 재무성과의 관계를 분석하거나[2][5] 고객 및 기업 측면에서 성과와 성공요인[3][29]이 집중적으로 연구되었다. 그러나 창업실패에 관한 연구는 창업실패 요인[14][25][21][32]을 분석한 연구와 창업실패 과정을 분석한 연구[41][44][54]나 창업실패 경험에 대한 대처행동[13][48][50]에 관한 실증연구들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창업실패로부터의 학습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사회적 비용과 관리에 초점을 맞춘 연구[47], 창업실패의 결과에 관한 연구로 파산법 관련 연구[43]와 창업실패에 대한 교수법을 제안하거나 사회적 낙인효과와 전략을 밝힌 연구[56]들이 수행되어 왔으나 창업환경의 고도화에 따른 실패부담감과 창업실패를 다룬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즉, 지금까지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나 기존 연구들은 주로 창업 성공요인에 관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소상공인 창업실패요인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일반 기업의 창업실패에 대한 연구들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대다수 연구가 직접적인 창업실패 요인을 찾기보다 파산법 또는 실패 후 교수법, 사회적 낙인을 다루는 간접적인 요인에 치중되어 있어 그 한계를 보임과 동시에 본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창업성공 중심의 연구에 치중되어 있는 기존 연구의 한계에서 벗어나 정부육성 정책에 힘입어 창업자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실패 또한 급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실패환경에 따른 심리적 기제와 요인을 찾으려는 소상공인 경영자의 창업환경이 실패부담감과 창업실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이의 인과관계를 알아보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갖는다.

II. 이론적 배경

1. 소상공인 창업환경

소상공인의 창업요인은 다양한 변인들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데 Aldrich(1992), Steven et al(1994), 서정혜(2006), 송경숙(2014) 등의 기존 연구들의 공통적 요인은 경영자 사업비즈니스 환경, 조직내 외부환경으로 요약 될 수 있다.

첫째, 창업 경영자 환경으로 이는 기업가정신과 경영자질로 대변된다. 즉 창업자의 기업가정신 결여는 창업실패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Aldrich[35]는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혁신적 사고를 우선 요구된다고 하였다. Stevenson et al[49]는 현재 통제할 수 있는 자원에 구애받지 않고 기회를 추구하는 역경 속에서도 창의력과 굳건한 의지를 발휘하여 기업을 경영해 나갈 수 있는 불굴의 의지가 요구된다고 하였다[40].

또한 경영자질에 있어서도 창업자의 성격 또한 창업의 중요한 실패요인 중 하나로 리더에게는 팀워크와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지만 의외로 경영자질이 없는 CEO가 많다는 데 문제가 있다[4].

직장인들의 평균 재직연수가 줄어들며 따라 이직률이 잦고 퇴사율이 높은 사회환경에서 쉽게 창업의 길을

찾으려 한다. 그러나 이들은 기업이라는 조직 속에서 본인의 업무 외에는 다른 업무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전반에 대해 모두 알고 있어야 하는 창업자의 자질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직장인들은 자신의 직장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다거나 언제 퇴사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창업부터 계획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45]. 이 같은 무리한 창업 시도는 급변하는 창업트렌드와 사회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근시안적인 태도 또한 성공적인 창업에서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결국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창업자들은 실패의 길을 걷게 된다는 점에서 주요요인이 된다.

둘째, 사업비즈니스적 환경으로 이는 사업 아이템 선정과 영업생산능력, 자금구조, 마케팅 능력 등이 그 대상이 되는데 먼저 사업 아이템선정에 있어 창투사나 자금지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중소기업인 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바로 ‘우리 제품은 세계 유일’이며 ‘경쟁제품은 하나도 없다’는 말을 듣게된다[9].

이는 창업자 자신이 사업 아이템에 대한 사업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이다[11]. 사업성을 판단하는 데는 문화나 사회트렌드의 변화를 주시해야 하며 창업트렌드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점포의 경우 아이템선정 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입지의 선정이다. 물론 수십 년을 내려온 역사가 있는 점포나 기업의 경우에는 달라지겠지만 마케팅 요소 중 유통(Place)에 속하는 접근성이 용이한 입지선정은 소비자에게 더욱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요건이 될 수 있는 점에서 중요한 요인이 된다[15].

또한 생산능력의 관점에서 초기의 창업자들은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모델을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영업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CEO는 기업역량 밖의 업무까지 욕심을 내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바로 이 경우에 경영상의 패착이 나타나게 된다[26].

주로 안정되지 못하거나 초기의 기업들이 이러한 오류를 범하기 쉬운데 생산이나 개발능력이 고려되지 않는 전혀 다른 분야의 업무는 직원들은 물론 창업자 자신에게도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42]. 그러다보면 기업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고 사업 분야에 혼동이

오는 등 기업이 와해되는 것이다.

특히 재무적 관점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큰 애로를 물어본다면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바로 자금문제이다[7]. 이러한 자금문제는 창업 초기에 재무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막상 창업을 하였으나 가시적인 수익모델이 부재하거나 수입이 없는 경우 절실한 문제로 다가오게 된다[12].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면 고급인력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게 되는데 이리다보면 아웃소싱을 통한 비중이 증가하고 본 사업마저 지연하게 된다[32]. 고급인력은 이탈하게 되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제조업은 특히 초기 시설 투자에 많은 비용을 소요하게 되는데 무조건 공장만 차리면 된다는 식의 사고는 지양해야할 부분이다. 파트너십의 관계나 부실한 공장의 인수 등의 우회적인 방법을 고려해야할 것이다. 또한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자금난은 가중되기 마련이다. 자금난이 가중되면 부채에 대한 의존도가 높게 되고 결국 기업의 존립에 큰 문제로 작용하게 된다.

그밖에 마케팅 관점에서 제조업을 창업한 창업자들에게 마케팅에 대한 능력은 비교적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단순한 영업과 마케팅의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창업자들이 자금난 다음으로 꼽는 애로사항이 바로 이 마케팅이다. 일단 만들긴 만들었는데 팔리지 않아 걱정이라는 창업자들의 호소에는 분명 모순이 존재하는데 바로 과연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었느냐의 문제이다[18].

영업이란 단순히 제품을 계약하고 판매하는 전략을 의미하지만 마케팅이란 사전기획단계에서부터 시장조사, 경쟁사분석, 마케팅전략, 사후관리 등 일련의 과정이 포함된 경영전략인 것이다. 제품의 사전 기획단계에서 과연 고객들이 원하고 있고,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제품인가를 고려하고 기획하는 것이 급선무 일 것이다. 그다음에 진행되는 부분이 보통 판촉(promotion)으로 대변되는 마케팅 활동또한 주요 변인이 된다[4].

셋째, 조직내부 환경으로 이는 내부환경과 외부환경으로 나누어지는데 경영체계에 있어 보통 초기 창업을 하게 되면 5인 미만의 소상공인 창업을 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경우 경영과 업무 체계가 혼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다. 조직도가 구분이 되어 보고체계나 일을 처리하는 채널이 단일화 되어야하는데 CEO가 모든 일을 알아서 처리하거나 조직원이 정보가 공유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6].

또한 중간관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CEO와 실무자와의 주먹구구식의 업무 처리 방식은 경영체계에 혼란만 초래하고 조직이 와해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소규모의 기업형태에서는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난다[53]. 조직원들 사이의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반감을 초래하여 횡령이나 내 부고발 등의 사태가 우려될 수 있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또한 조직구성원의 팀워크 관점에서 소규모의 기업 형태에서는 공개채용을 통한 직원채용보다는 가족이나 지인들로 구성된 특별채용 형태가 많이 나타난다. 실제로 가족들로 모여진 패밀리 컴퍼니(family company)의 형태도 많으며 대학선후배로 이뤄진 기업도 심심찮게 볼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오히려 팀워크에 더욱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45].

구성원 모두가 서로 연관이 있는 형태이거나 동등한 선발조건에서 이뤄진 구성원들은 상하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팀의 단합이 그만큼 어렵게 된다. 모두가 주인이고 모두가 특채인 조건에서는 이를 규합할 만한 대안이 없고 그만큼 힘들다[4]. 직원들 모두가 고액의 연봉자들이거나 실무자는 적고 결정권자들만 많은 구조에서는 더욱더 문제는 심각하게 된다. 팀워크를 이루기는 힘들고 이를 통솔할만한 리더가 없다면 이들은 서로의 독립을 계획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조직은 와해되는 것이다. 소규모의 집단에서의 이러한 형태는 흔히 볼 수 있는 실패요인 중의 하나이다.

넷째, 조직외부 환경으로 먼저 산업트렌드에 있어 산업의 트렌드를 무시하고 시장진입을 한 경우 그 기업의 제품은 소비자들에게 외면을 받기 십상이며 이는 곧 제품의 존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틈새라는 컨셉을 노려 신규시장을 진입하여 성공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산업의 대세를 거슬러 시장진입을 하는 경우에는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기업에서는 시장조

사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20].

한동안 적은 규모의 공간으로도 창업을 할 수 있다는 1인 창업 소호(SOHO: Small Office Home Office)가 유행이었는데 이 여세를 몰아 주부들 사이의 와이프로그가 대세였다. 와이프로그란 주부(wife)와 블로거(blogger)가 결합된 신조어로서 블로그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주부라는 뜻이다[4]. 이들은 콘텐츠를 제공함과 동시에 여기에 상업성을 가미한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한 것이다. 이는 모두 IT기반을 이용한, 즉 인터넷 기반이 발달됨에 따라 쌍방향적인 커뮤니티와 참여형 컨셉이 어우러진 신종 아이템이라 할 수 있듯이 산업의 변화에 맞는 인기 업종을 기회로 활용할수록 창업 실패 또한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또한 경쟁사 환경에 있어서도 주요 포인트가 되는데 정부에서 경기진작을 위해 벤처지원특별법을 만들어 무차별적인 지원을 한 적이 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벤처를 부르짖었고 ‘묻지마 투자’ 등 출처를 알 수 없는 각종 돈줄이 몰려든 적이 있었다. 덕분에 그야말로 벤처는 난립을 이루었고 벤처거품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경제가 하루아침에 거품이 꺼지게 된 적이 불과 몇 년 전의 일이다[33].

이처럼 경쟁사들의 난립은 창업자에게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외국에서는 하나의 음식점이 생기면 그 주위에는 그 음식점의 하청업체들, 즉 재료를 공급해주는 업체들이 생겨나 서로의 시너지를 구현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좀 다르다. 한 음식점이 잘 된다 싶으면 그 주위에 비슷하거나 똑같은 종류의 음식점들이 난립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시장이 왜곡되어 정확한 판단력과 균형 감각을 상실하게 되며 지나친 경쟁을 야기하게 된다[11]. 경쟁사들이 왜 난립하게 되었는지, 비전은 있는지, 과연 시장진입을 하였을 때 기업의 생존가능성은 어느정도인지를 정확히 따져봐야 성공창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자금시장 측면에서도 자금문제는 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해당되며 이로 인해 기업의 생사가 결정되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한다. 어느 업종을 불문하고 자금문제는 기업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7].

초기의 창업자금은 창업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진율이 빨라 창업자는 2차 펀딩을 계획하게 된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개발비가 주로 필요하게 되며 여타의 업종들은 운영자금에 허덕이게 된다. 이러한 경우 2차 펀딩에 실패하게 되는 경우 중국엔 폐업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개발지연, 직원이탈 등의 이유로도 창업에 실패하게 되는 것이다[12].

창업자는 창업초기에 자기자본과 지인들의 자본을 끌어 모아 창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금융권의 자본은 진입장벽이 높아서 초기 창업자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창업자들은 정부의 창업지원 자금을 이용하게 된다. 자금시장은 상당히 유동적이다. 경기와도 관련이 있고 산업 트렌드와도 관련이 있다. 또한 정치 및 국민정서와도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자금시장인 것이다[32].

그밖에 정부규제의 법적인 관점에서 기업은 극단적인 경우 자금사정악화 등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직원들은 제소를 하게 되며 노동법 위반으로 고발당하는 창업자도 적지 않다. 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을 물게 되는 경우이다. 또한 회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은 세금관련 문제에 어두워 의도하지 않은 벌금을 물거나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34]. 이처럼 기업들은 법적인 규제안에서 안전하지 못하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런가하면 정부의 규제에 따라 사업의 추진방향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폐기물처리나 배기가스처리 등으로 인한 환경규제강화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으며 최근엔 통신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일반인들이 통신에 대한 광대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도 정부의 규제에 의한 현상들이다[33].

2. 실패부담감

실패부담감은 창업이전에 잠재 창업자들이 불확실성 및 위험요인에 직면하면서 창업의지 형성 과정에서 의지 약화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며, 창업실행시, 창업 후 사업운용시에도 지속적으로 자신감을 훼손시켜 기업이

정신의 본질인 위험감수 성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창업실패 부담감은 창업자들이 창업시 기대할 수 있는 혜택보다 실패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훨씬 클 때 발생하게 된다[16]. 따라서 창업생태계 조성시에 입구환경 뿐만 아니라 출구환경에도 정책의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실패를 성공으로 가는 경험축적으로서 귀중한 자산으로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 기업인에 대한 은행의 연대보증 요구, 과거 실패한 기업인들의 파산사태에서 한번 실패는 영원한 실패라는 낙인효과 등의 사회분위기로 인해 잠재창업자 또는 사업을 운용 중인 기업인들에게도 실패부담감이 유독 크게 나타나고 있다[31].

성창수[10]의 연구에서도 창업교육 수료 이후 창업의도는 다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창업실행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경우 실패부담감 등으로 창업의도가 더 이상 높아지지 않은 것으로 추론하고 있다. 최금숙[30]의 남녀 15~34세 1,115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창업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 가운데 그 이유로 위험부담이 커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해서, 사업아이디어가 없어서, 자금이 부족해서 등의 순으로 나타나 막연한 실패부담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oyd & Gumpert[36]는 중소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조사 결과에서 약 55~65%의 기업가들이 심한 불면증, 소화불량, 두통 등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내 기업가들이 겪는 고통은 고독감, 일에 대한 함몰, 여러 인간관계, 성취에 대한 과욕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점에서 실패에 대한 부담을 그만큼 절대적인 영향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3. 창업실패

창업실패에 관한 국내 연구는 미약한 수준으로 이루어졌는데[5][8] 이중 창업실패에 관한 양적연구[19][44]와 질적연구[14][41], 창업실패의 심리 사회적 비용에 관한 선행 연구[38], 창업실패의 대처에 관한 선행 연구[18][19]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이장우·이성훈[19]은 1997년에 벤처기업협회

에 등록되어 있는 250개 회원사 중에서 116개사를 표본으로 창업가 특성, 환경, 전략 그리고 조직특성을 조사하였고, IMF 경제위기를 거친 2000년에 다시 추적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 기업 경영 경험이 있는 창업자가 실패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창업 시 자기 자금비중, 창업자의 전공 관련성과 시장세분화가 실패 기업과 생존 기업을 판별해주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이 동일 선상에 있지 않으며 실패 요인을 극복한 기업이 반드시 성공하는 것이 아님을 밝혔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신중경·하규수[14]의 연구는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한 창업실패 사례공모전에 응모한 사례들을 ERIS 모델을 중심으로 창업실패 요인과 실패 패턴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창업 시점부터 창업실패까지 평균 41.56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세계 기업가 정신연구(GEM)에서 창업 안정기를 42개월 이상 임금이 지급된 시기로 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창업실패에 관한 선행연구는 창업에 실패한 기업과 기업가, 벤처자본가를 대상으로 창업실패 과정과 경험, 창업실패 요인과 파산에 대하여 양적, 질적 연구가 다양하게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창업경험의 학습효과와 사회적 심리적 비용과 관리에 주목한 기존 연구들에서 벗어나 창업 실패에 따른 재무적, 비재무적 손실을 실패 속성으로 보고 이를 반영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창업의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는 개인, 조직, 사회에 있어서 원인과 결과를 포함하여 창업가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현상으로 실패는 일반적으로 어떤 희망한 결과나 결론을 성취하지 못한 사실이나 상태이며, 희망한 결과를 벗어난 상태뿐만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경험의 부정적인 산물이다[37]. 즉, 실패가 고통스럽고 내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경험이지만 많은 창업가들은 경험

의 중요 요소로 지난 실패로부터 학습할 수 있음에 따라 일정수준의 실패경험은 창업성과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39].

이에 본 연구에서의 소상공인 경영자의 창업환경으로 창업 경영자 환경, 창업 비즈니스적 환경, 조직 내부환경, 조직 외부환경의 4개 요인이 실패부담감과 창업실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즉, 본 연구는 소상공인 경영자의 창업환경이 실패부담감과 창업실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목적을 갖고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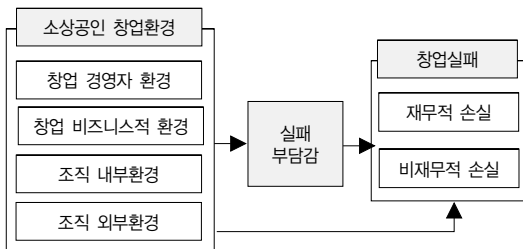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위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H1 : 소상공인 창업환경은 실패부담감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1: 창업 경영자환경은 실패부담감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2: 창업 비즈니스적 환경은 실패부담감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3: 조직 내부환경은 실패부담감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4: 조직 외부환경은 실패부담감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 소상공인 창업환경은 재무적 손실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1: 창업 경영자환경은 재무적 손실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2: 창업 비즈니스적 환경은 재무적 손실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3: 조직 내부환경은 재무적 손실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4: 조직 외부환경은 재무적 손실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 소상공인 창업환경은 비재무적 손실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1: 창업 경영자환경은 비재무적 손실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2: 창업 비즈니스적 환경은 비재무적 손실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3: 조직 내부환경은 비재무적 손실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4: 조직 외부환경은 비재무적 손실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 실패부담감은 창업실패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4-1: 실패부담감은 재무적 손실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4-2: 실패부담감은 비재무적 손실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연구의 논의를 풍부하게 하기 위하여 문헌 연구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먼저 문헌 연구에서는 국내외 학술지와 전문지 등의 관련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설문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통해 실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지역소재 소상공인 경영자 총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설문조사 기간은 2014년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총 10일간 실시하였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각 소상공인 경영자에 직접 양해를 구하고 조사하였다.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이 중 불성실 응답자와 결측치를 제외하고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3. 측정도구의 조작적 정의 및 설문지 구성

설문지의 각 항목들은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설문과

이론을 근거로 총 4개 영역의 총 3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인구통계학적 요인인 개인적인 특성은 성별, 연령, 학력의 3문항은 명목척도로 구성하였고, 소상공인 창업환경, 실패부담감, 창업실패의 항목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각 문항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3.1 소상공인 창업환경

소상공인 창업환경은 창업을 위해 경영관점에서 요구되는 인적·물적자원으로 기업가정신과 경영자의 자질 및 비즈니스 경영환경을 의미한다[4]. 본 연구에서는 전병유[22]와 민보연[4]의 소상공인 창업속성을 중심으로 창업 경영자 환경, 창업 비즈니스적 환경, 조직 내부 환경, 조직 외부환경으로 구분하여 본 연구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총 16문항의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3.2 실패부담감

실패부담감은 창업 이전 잠재창업자들의 불확실성 및 위험 요인에 직면하면서 창업의지 형성 과정에서 의지약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16]. 본 연구에서는 Boyd & Gumpert[36]와 Shapero & Sokol[46]의 척도를 국내 반영한 하규수[22]와 오상훈[16]의 척도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총 3문항의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3.3 창업실패

창업실패는 재무적 손실과 비재무적 손실로 구분하였으며, 재무적 손실이란 창업시 자금소요가 창업초기에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많아지는 경우를 말하며, 비재무적 손실이란 재무적 비용 외에 창업가들이 부담하는 모든 부담을 포함하는 것으로 가족관련 손실, 사회적 손실, 경력 손실, 명예 및 자존감 상실 등을 의미한다[33]. 본 연구에서는 Thornhill & Amit[52]의 척도를 국내 반영한 하규수[31], 한정화[33]의 척도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총 8문항의 Likert 5

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4. 자료분석방법

자료분석방법으로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데이터 코딩과 데이터 크리닝 과정을 거쳐, SPSS v. 18.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각 변수간에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사용하였으며, 각 변수간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다음 [표 1]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성별은 남성 190명(65.7%), 여성 99명(34.3%)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30대 이하 71명(24.6%), 40대 165명(57.1%), 50대 이상 53명(18.3%)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이하 82명(28.4%), 전문대졸 96명(33.2%), 대학교졸 89명(30.8%), 대학원이상 22명(7.6%)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N)		퍼센트(%)
	성별	남성	190
	여성	99	34.3
연령	30대 이하	71	24.6
	40대	165	57.1
	50대 이상	53	18.3
학력	고졸이하	82	28.4
	전문대졸	96	33.2
	대학교졸	89	30.8
	대학원이상	22	7.6
전체		289	100.0

2.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변수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구성

개념 타당도를 검증하기위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사용하였다. 타당성이란 측정을 위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특히, 요인의 수를 최소화하여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방식을 이용하였고, 회전방식은 직각회전(varimax)방식을 사용하였다. 요인의 수 결정은 고유값(eigen value)이 1 이상인 요인만 선택하였으며, 각 변수와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주는 요인 적재치(factor loading)는 그 값이 0.4 이상인 경우를 유의적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2.1 소상공인 창업환경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소상공인 창업환경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먼저 Bartlett의 단위행렬 점검 결과 $\chi^2=253.944$ (Sig.=0.000)이므로 변수들 사이에 요인을 이룰만한 상관관계가 충분하고, KMO의 표본적

표 2. 소상공인 창업환경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구 분	성 분			
	창업 경영자 환경	창업 비즈니스 적 환경	조직 내부 환경	조직 외부 환경
1. 창업현실을 직시한 명확한 판단력	.744	-.170	.294	-.104
2. 팀워크와 솔선하는 리더십	.715	-.207	.254	-.088
3. 창업이론 및 체계적 준비	.858	-.065	.163	-.076
4. 업무에 대한 경력, 지식경비	.835	.107	-.016	-.019
9. 산업환경에 맞는 철저한 시장조사	-.124	.867	-.115	.107
10. 경쟁사의 경쟁력 조사와 평가를 통한 정보공유	-.032	.812	-.028	.246
11. 조직구성원의 역할과 팀체제 구축	-.028	.814	-.002	.386
12. 조직 결집력 극대화	-.126	.744	.077	.341
13. 산업 트렌드에 부합한 시장진입	-.017	.180	.181	.791
14. 소비자 중심의 사고와 교육체계 확립	-.119	.276	.110	.820
15. 창업지원 정책 최대 활용	-.069	.307	.011	.804
16. 창업관련 육성, 제한 법률속지	-.082	.180	.051	.823
5. 창업아이템에 대한 사업성 객관적 평가	.098	-.092	.856	.065
6. 창업트렌드와 사회적 변화와 부합성	.368	-.196	.678	-.043
7. 소비자금의 안정적 도달	.095	-.016	.840	.133
8. 전문인력 확보와 영업인력 투입	.180	.239	.690	.189
고유값	2.743	3.053	2.621	3.044
분산변량%	17.147	19.081	16.379	19.023
누적변량%	55.251	19.081	71.630	38.105
신뢰도	.834	.882	.809	.873

KMO =0.847, Bartlett's test결과 $\chi^2 =2530.944$ (df=120, Sig.=0.000)

합도 점검결과 KMO 값이 0.847로 나타났으며, 공통성 등을 점검한 결과에서도 측정자료의 요인분석 가정을 만족시키므로 다음과 같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 4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의 중심개념을 바탕으로 요인 명을 부여하였다. 요인분석 결과로서 요인1(19.081%)은 ‘창업비즈니스적 환경’으로 명명하였고, 요인2(19.023%)는 ‘조직외부환경’으로, 요인3(17.147%)은 ‘창업경영자환경’으로, 요인4(16.379%)는 ‘조직내부환경’으로 명명하였다. 이 4개의 요인 적재값이 ±.4이상으로 나타나 추출된 요인은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신뢰도 또한 모두 .6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2.2 실패부담감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실패부담감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먼저 Bartlett의 단위행렬 점검 결과 $\chi^2=549.782$ (Sig.=0.000)이므로 변수들 사이에 요인을 이룰만한 상관관계가 충분하고, KMO의 표본적합도 점검 결과 KMO 값이 0.755로 나타났으며, 공통성 등을 점검한 결과에서도 측정자료의 요인분석 가정을 만족시키므로 다음과 같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 1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요인분석 결과로서 요인1(83.915%)은 ‘실패부담감’으로 명명하였다. 이 1개의 요인 적재값이 ±.4이상으로 나타나 추출된 요인은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신뢰도 또한 모두 .6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 실패부담감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구 분	성 분
	실패부담감
1. 나는 사업실패 시 사업투자자금 손실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917
2. 나는 사업실패 시 가족의 안정 및 화목과 관련된 위험이 두렵다.	.913
3. 나는 사업실패 시 경력 및 사회적 손실로 인해 부담감이 두렵다.	.918
고유값	2.517
분산변량%	83.915
누적변량%	83.915
신뢰도	.903

KMO =0.755, Bartlett's test결과 $\chi^2 =549.782$ (df=3, Sig.=0.000)

2.3 창업실패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창업실패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창업실패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구 분	성 분	
	재무적 손실	비재무적 손실
1. 기업의 차입금으로 기업인이 손실을 보게 될 것이다.	.833	.105
2. 차입금이 사업종결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890	.149
3. 기업가가 잃는 손실은 기업에 투입한 기업가의 투자 자금을 한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874	.167
4. 일반적으로 기업가가 잃는 금전적 손실금액을 예측하기 어렵다.	.711	.109
5. 실패한 기업인에게 새로운 기업운영의 기회가 좀처럼 주어지지 않는다.	.270	.705
6. 기업가는 자신감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141	.856
7. 투자자는 실패한 사업가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055	.812
8. 기업가의 가족들의 생활이 사업실패 이전보다 어려워질 것이다.	.083	.812
고유값	2.859	2.622
분산변량%	35.737	32.769
누적변량%	35.737	68.506
신뢰도	.862	.821

KMO=0.773, Bartlett's test 결과 $\chi^2=1130.957$ (df=28, Sig.=0.000)

먼저 Bartlett의 단위행렬 점검 결과 $\chi^2=1130.957$ (Sig.=0.000)이므로 변수들 사이에 요인을 이룰만한 상관관계가 충분하고, KMO의 표본적합도 점검결과 KMO 값이 0.773으로 나타났으며, 공통성 등을 점검한 결과에서도 측정자료의 요인분석 가정을 만족시키므로 다음과 같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 2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의 중심 개념을 바탕으로 요인 명을 부여하였다. 요인분석 결과로서 요인1(35.737%)은 '재무적 손실'로 명명하였고, 요인2(32.769%)는 '비재무적 손실'로 명명하였다. 이 2개의 요인 적재값이 ±.4이상으로 나타나 추출된 요인은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신뢰도 또한 모두 .6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3. 각 변수간 상관관계 검증

다음 [표 5]는 각 변수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소상공

인 창업환경의 하위요인별 창업경영자환경, 창업비즈니스적환경, 조직내부환경, 조직외부환경은 실패부담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창업실패의 하위요인별 재무적 손실, 비재무적 손실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패부담감은 창업실패의 하위요인별 재무적 손실, 비재무적 손실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각 변수간 상관관계 검증

구분	1	2	3	4	5	6	7
창업경영자 환경	1						
창업비즈니스적 환경	.414***	1					
조직내부환경	-.212***	-.046	1				
조직외부환경	-.175**	.169**	.557***	1			
실패 부담감	-.266***	-.299***	-.297***	-.429***	1		
재무적 손실	-.368***	-.328***	-.194**	-.200**	.346***	1	
비재무적 손실	-.189**	-.306***	-.212***	-.194**	.342***	.323***	1

p<.01, *p<.001

4. 가설의 검증

4.1 가설1의 검증

다음 [표 6]은 소상공인 창업환경이 실패부담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31.4%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F=34.006, p<.001). 독립변수별로는 창업경영자 환경, 창업비즈니스적 환경, 조직내부환경, 조직외부환경이 실패부담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즉, 조직외부환경이 높아지면 실패부담감은 .376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창업경영자환경이 높아지면 실패부담감은 .312 낮아지는 것으로, 조직내부환경이 높아지면 실패부담감은 .159 낮아지는 것으로, 창업비즈니스적환경이 높아지면 실패부담감은 .113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패부담감 감소에 있어서는 소상공인 창업환경의 하위요인별 창업경영자 환경, 창업비즈니스적 환경, 조직내

부환경, 조직외부환경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표 6. 소상공인 창업환경이 실패부담감에 미치는 영향

구 분	β	t	p	F	R ²
(상수)		18.338	.000		
창업경영자환경	-.312	-5.592***	.000		
창업비즈니스적 환경	-.113	-2.019*	.044	34.006***	.314
조직내부환경	-.159	-2.664**	.008		
조직외부환경	-.376	-6.117***	.000		
종속변수: 실패부담감					

*p<.05, **p<.01, ***p<.001

4.2 가설2의 검증

다음 [표 7]은 소상공인 창업환경이 재무적 손실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24.4%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24.195, p<.001). 독립변수별로는 창업경영자 환경, 창업비즈니스적 환경, 조직내부환경이 재무적 손실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즉, 창업경영자환경이 높아지면 재무적 손실은 .365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직내부환경이 높아지면 재무적 손실은 .214 낮아지는 것으로, 창업비즈니스적환경이 높아지면 재무적 손실은 .168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무적 손실 감소에 있어서는 소상공인 창업환경의 하위요인별 창업경영자 환경, 창업비즈니스적 환경, 조직내부환경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표 7. 소상공인 창업환경이 재무적 손실에 미치는 영향

구 분	β	t	p	F	R ²
(상수)		18.027	.000		
창업경영자환경	-.365	-6.216***	.000		
창업비즈니스적 환경	-.168	-2.845**	.005	24.195***	.244
조직내부환경	-.214	-3.405**	.001		
조직외부환경	-.117	-1.810	.071		
종속변수: 재무적 손실					

p<.01, *p<.001

4.3 가설3의 검증

다음 [표 8]은 소상공인 창업환경이 비재무적 손실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4.9%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13.610, p<.001). 독립변수별로는 창업경영자 환경, 창업비즈니스적 환경, 조직내부환경이 비재무적 손실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즉, 창업비즈니스적환경이 높아지면 비재무적 손실은 .248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직내부환경이 높아지면 비재무적 손실은 .226 낮아지는 것으로, 창업경영자환경이 높아지면 비재무적 손실은 .143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재무적 손실 감소에 있어서는 소상공인 창업환경의 하위요인별 창업경영자 환경, 창업비즈니스적 환경, 조직내부환경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표 8. 소상공인 창업환경이 비재무적 손실에 미치는 영향

구 분	β	t	p	F	R ²
(상수)		14.849	.000		
창업경영자환경	-.143	-2.299*	.022		
창업비즈니스적 환경	-.248	-3.975***	.000	13.610***	.149
조직내부환경	-.226	-3.390**	.001		
조직외부환경	-.051	-.748	.455		
종속변수: 비재무적 손실					

*p<.05, **p<.01, ***p<.001

4.4 가설4의 검증

다음 [표 9]는 실패부담감이 재무적 손실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1.6%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38.948, p<.001). 독립변수로서 실패부담감은 재무적 손실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 실패부담감이 높아지면 재무적 손실은 .346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무적 손실 감소에 있어서는 실패부담감 완화가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표 9. 실패부담감이 재무적 손실에 미치는 영향

구분	β	t	p	F	R ²
(상수)		15.694	.000	38.948***	.116
실패부담감	.346	6.241***	.000		

종속변수: 재무적 손실

***p<.001

다음 [표 10]은 실패부담감이 비재무적 손실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1.4%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38.133, p<.001). 독립변수로서 실패부담감은 비재무적 손실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 실패부담감이 높아지면 비재무적 손실은 .342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재무적 손실 감소에 있어서는 실패부담감 완화가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표 10. 실패부담감이 비재무적 손실에 미치는 영향

구분	β	t	p	F	R ²
(상수)		15.315	.000	38.133***	.114
실패부담감	.342	6.175***	.000		

종속변수: 비재무적 손실

***p<.001

V. 결론

본 연구는 창업성공 중심의 연구에 치중되어 있는 기존연구의 한계에서 벗어나 정부육성 정책에 힘입어 창업자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실패 또한 급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실패환경에 따른 심리적 기제와 요인을 찾으려는 소상공인 경영자의 창업환경이 실패부담감과 창업실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데 목적을 갖고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상공인 창업환경이 실패부담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창업경영자 환경, 창업비즈니스적 환경, 조직내부환경, 조직외부환경이 실패부담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p<.05).

둘째, 소상공인 창업환경이 재무적 손실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창업경영자 환경, 창업비즈니스적 환경, 조직내부환경이 재무적 손실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셋째, 소상공인 창업환경이 비재무적 손실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창업경영자 환경, 창업비즈니스적 환경, 조직내부환경이 비재무적 손실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넷째, 실패부담감이 창업실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실패부담감은 재무적 손실, 비재무적 손실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소상공인 경영자의 창업환경에 있어 창업에 따른 경영자가 갖고 있는 경영자 자질이나 기업가정신 등의 오톨로서의 특성과 비즈니스적 환경, 조직내부 결속, 소통력 등의 체계적 조직화 요인이 실패부담감과 재무적·비재무적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속성임을 입증해 주었다. 이 같은 결과는 소상공인 경영자의 창업환경에 있어 창업에 따른 경영자가 갖고 있는 경영자 자질이나 기업가정신의 오톨로서 갖추어야 할 특성과 비즈니스적 환경, 조직내부 결속, 소통력 등의 체계적 조직화 요인이 실패부담감과 재무적·비재무적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인임을 의미한다.

이는 최근 젊은 세대에서 이직률이 높고 전문 직업보다는 전문업종이 중요시되는 창업트렌드에 기존 정설처럼 회자되던 요인이 사실로 입증된 것이다. 회사를 만들었다가도 경영자의 능력과 자질, 경험, 전문성의 부족에 따른 실패는 기업가 정신의 결여에서 기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22]. 또한 창업자의 대부분 사업에 대한 지나친 확신으로 인한 과대망상으로 인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창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더욱 실패를 하게 만드는 것이 현실이다.

하규수[12]는 창업에서 실패한 이후 기업들의 회생을 돕는 비용보다는 훨씬 낮은 비용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창업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창업 실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창업실패 후유증을 낮출 수 있다고 하였듯이 한국의 소상공인 창업에서 유독 사업실패 부

담감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기업가가 스스로 느끼는 심리적인 주관적 부담감과 실패자에 대한 재기 기회가 차단되어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여건과 객관적 부담감이 크기 때문이다. 객관적 부담감을 유발하는 요인은 즉 낮은 창업 성공률, 회사 설립시 대표자의 연대보증 제도, 경기상황의 불확실성, 업종 내 과다경쟁 등 부정적 환경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대다수 실패한 창업가의 상당수는 산업 환경측면에서 정부 정책의 변화로 실패하였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보다는 창업가들이 기업 활동의 어려움으로 자주 지목하는 마케팅의 어려움, 인력확보의 어려움이 창업실패의 주요요인임을 강조한데서 본 연구의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해 준다.

따라서 창업 후 1년 이내 72.6%가 폐업하는 창업환경에서 실패에 따른 사회적 낙인에 의해 재기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반복적이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창업경영자에 요구되는 경영환경 속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창업실패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준비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대상이 서울지역의 일부 특정지역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지역적 분포를 고려한 추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광원일, 노정구, 박남규, “항만용역업 경영합리화 방안에 대한 연구: 부산항 화물 고정업을 중심으로”, 경영교육연구, 제10권, 제1호, pp.171-195, 2006.
 [2] 강영욱, 하규수, “소상공인 창업자특성과 창업준비과정이 창업성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자기효능감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디지털정책연구, 제10권, 제9호, pp.239-251, 2012.
 [3] 김춘화, 강병오, 윤형보, “점포창업자의 창업 전 창업교육 및 현장 체험이 점포의 운영성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집, 제14권, 제3호, pp.1135-1147, 2013.
 [4] 민보연, *ESBE* 모형을 통한 소상공인 창업실패

요인 분석, 호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5] 박명수, *중소기업 경영자의 창업경험이 기업성파에 미치는 영향: 창업 실패율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6] 박봉삼, *소상공인 창업의 단계별 성공요인과 지원 방안*,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7] 박춘래, 이남주, 이충섭, “소상공인의 창업과정특성이 기업성파에 미치는 영향”, 재무와회계정보저널, 제10권, 제1호, pp.133-155, 2010.
 [8] 백재화, *재창업가의 창업실패와 대처 과정에 관한 근거 이론적 분석*, 울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9] 서정해, “창업 및 기업가에 대한 한중일 대학생의 의식”, 경영교육연구, 제43권, pp.153-171, 2006.
 [10] 성장수, *시니어창업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11] 송경숙, “외식산업 창업속성이 창업 과잉자신감과 창업자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제14권, 제3호, pp.414-426, 2014.
 [12] 손홍재, *소상공인 창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13] 신종철,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이 창업성파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14] 신중경, 하규수, “창업실패 요인 분류 및 실패 패턴 분석”, 디지털정책연구, 제11권, 제5호, pp.257-265, 2013.
 [15] 오상훈, 하규수, “창업 환경 및 인식이 사업실패 부담감을 매개로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정책연구, 제11권, 제8호, pp.143-157, 2013.
 [16] 오상훈, *청장년 및 시니어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연구: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7] 이신모, “한·미·일 대학생들의 창업의식비교”, 국제지역연구, 제9권, 제3호, pp.186-207, 2005.
 [18] 이윤원, 이남주, 이충섭, “소상공인의 전략적지향성이 기업성파에 미치는 영향”,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제9권, 제3호, pp.101-122, 2009.

- [19] 이장우, 이성훈, “벤처기업의 실패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1권, 제2호, pp.49-82, 2003.
- [20] 이장우, 장수덕, “미국 4개 대학의 창업교육 현황과 특징”,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제2권, 제2호, pp.57-90, 1999.
- [21] 장수덕, Scotte, 이상설, “벤처기업의 실패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연령의존관점과 자원기반관점의 통합적 접근”,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제11권, 제2호, pp.41-63, 2008.
- [22] 전병유, “지역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 변동과 노동이동”, 사회경제평론, 제21호, pp.327-368, 2003.
- [23] 정대용, “창업과 사회, 문화 요인간의 관련성에 관한 실증연구”, 국제경영연구, 제10권, 제1호, pp.59-89, 1999.
- [24] 정지호, *창업교육이 기업가정신과 창업 및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25] 정성민, 조성도, 김경은, 문연희, “국내 지방 벤처기업의 실패요인에 관한 탐색적 사례 연구”,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제11권, 제4호, pp.91-113, 2008.
- [26] 조병주, “창업 기회원천 분석과 기회탐색의 전략적 의미”, 중소기업연구, 제20권, 제1호, pp.245-266, 1998.
- [29] 조영준, 이승희, “창업특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연구: 창업성과를 매개효과로”, 디지털정책연구, 제10호, 제5호, pp.143-154, 2012.
- [28] 조인석, “중소기업청 창업지원정책을 활용한 게임창업”, 한국콘텐츠학회지, 제7권, 제2호, pp.46-49, 2009.
- [29] 중소기업청, *2013년 창업지원사업*, 중소기업청, 2013.
- [30] 최금숙, “청년 여성들의 구직·창업에 대한 인식과 태도”, KWDI Brief, 제24호, pp.1-12, 2013.
- [31] 하규수, *기업가의 사업실패비용과 사업 의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32] 하규수, “사업에 대한 태도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의욕에 미치는 영향”, 기업경영연구, 제19권, 제5호, pp.59-74, 2012.
- [33] 한정화, *벤처창업과 경영전략*, 홍문사, 2008.
- [34] 황수연,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35] H. F. Aldrich, *Methods in Our Madness? Trends in Entrepreneurship Research*. In Sexton, D. L. & Kasarda, J. D.(eds) *The State of the Art of Entrepreneurship*(pp.191-213), PWSKent Publishing, Boston, Massachusetts, 1992.
- [36] D. P. Boyd and D. E. Gumpert, “Coping with Entrepreneurial Stress,” *Harvard Business Review*, Vol.61, No.2, pp.44-64, 1983.
- [37] M. Cannon and A. Edmondson, “Confronting Failure: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Shared Beliefs about Failure in Organizational Work Group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Vol.22, No.2, pp.161-177, 2001.
- [38] P. R. Coelho and J. E. McClure, “Learning from Failure,” *American Journal of Business*, Vol.20, No.1, pp.1-20, 2005.
- [39] J. Cope, F. Cave, and S. Eccles, “The Impact and Outcomes of Venture Failure: An Entrepreneurial Learning Perspective,”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Vol.28, No.4, pp.259-298, 2008.
- [40] Y. Gasse, *Elaborations on the Psychology of the Entrepreneur*. In Kent, C. A., Sexton, D. L. and K. H. Vesper(eds). *Encyclopedia of Entrepreneurship*(pp.57-66),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82.
- [41] J. Huovinen and S. Tihula, “Entrepreneurial Learning in the Context of Portfolio Entrepreneurship,”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ur & Research*, Vol.14, No.3, pp.152-171, 2008.
- [42] H. Lee-Gosselin and J. Grise, “Are Women

- Owner-Managers Challenging Our Definitions of Entrepreneurship? An In-Depth Survey,” *Journal of Business Ethics*, Vol.9, No.4, pp.423-435, 1990.
- [43] P. W. Peng Y. Yamakawa, and S. H. Lee, “Bankruptcy Law and Entrepreneur Friendlines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34, No.3, pp.517-530, 2010.
- [44] D. Politis and J. Gabrielsson, “Entrepreneurs’ Attitudes towards Failure: An Experiential Learning Approach,”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ur & Research*, Vol.15, No.4, pp.364-383, 2009.
- [45] P. D. Reynold, W. D. Bygrave, E. Autio, W. Cox, and M. Hay,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01 Summary Report*, London Business School and Bobson Collage, 2002.
- [46] A. Shapero and Sokol, L. *Social Dimensions of Entrepreneurship*, Englewood Cliff, NJ: Prentice-Hall, 1982.
- [47] D. A. Shepherd, “Multilevel Entrepreneurship Research: Opportunities for Studying Entrepreneurial Decision Making,” *Journal of Management*, Vol.37, No.2, pp.412-420, 2011.
- [48] S. Singh, P. Corner, and K. Pavlovich, “Coping with Entrepreneurial Failure,” *Journal of Management & Organization*, Vol.13, No.4, pp.331-344, 2007.
- [49] H. H. Stevenson, M. J. Roberts, and H. I. Grousbeck, *New Business Ventures and the Entrepreneur*, Boston: MA., Irwin, 1994.
- [50] S. Subramanian and M. V. Kumar, “Coping with Failure, Mental Health and Career Intentions among Failed Entrepreneurs,” *Asia Pacific Business Review*, Vol.5, No.1, pp.120-125, 2009.
- [51] S. Tam and S. G. Redding, The Impact of Colonialism on the Formation of an Entrepreneurial Society in Hong Kong. In S. Birley, and S. MacMillan(Ed), *Entrepreneurship Research, Global Perspectives*(pp.158-176), North Holland: Elsevier, 1993.
- [52] S. Thornhill and R. Amit, “Learning about Failure: Bankruptcy, Firm Age and the Resource Based View,” *Organization Science*, Vol.14, No.5, pp.497-509, 2003.
- [53] J. A. Timmons, and S. Spinelli, *New Venture Creation: Entrepreneurship for the 21st Century*, McGraw-Hill, 2006.
- [54] D. Ucbasaran, D. A. Shepherd, A. Lockett, and S. J. Lyon, “Life After Business Failure the Process and Consequences of Business Failure for Entrepreneur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Vol.39, No.1, pp.163-202, 2013.
- [55] D. Ucbasaran, P. Westhead, M. Wright, and M.Flores, “The Nature of Entrepreneurial Experience, Business Failure and Comparative Optimism,”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25, No.6, pp.541-555, 2010.
- [56] Y. Vaillant and E. Lafuente, “Do Different Institutional Frameworks Condition the Influence of local Fear of Failure and Entrepreneurial Examples Over Entrepreneurial Activity,” *Entrepreneurship and Regional Development*, Vol.19, No.4, pp.313-337, 2007.

저 자 소 개

송 경 숙(Kyong-Suk Song)

정회원



- 2009년 9월 : 경기대학교 외식조리관리학과(관광학 박사)
- 현재 : 원광보건대학교 외식조리과 교수

<관심분야> : 외식산업, 외식창업, 외식마케팅, 외식서비스